

큰산 -이호철

3115 이민형

갈래 :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 풍자적, 우의적, 회상적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 1970년대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사는 마을
- 군사 정권이 독재 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3선 개헌을 강행하면서 극도로 불안해진 사회

등장인물

- 나 - 작중 화자이며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소시민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비판함.
- 아내 - 고무신을 담장 너머로 던지나 다시 그 고무신이 되돌아온 것을 보고 또다시 버리고 옴.

표현상 특징

-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긴밀히 연계됨
- 역행적 구성
- '고무신짝'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며, 인물들의 내재된 의식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함.

<전체 줄거리>

'나'가 사는 동네는 어느 정도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젊은 샐러리맨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가끔 갖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나'와 아내는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웬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나'는 고무신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복에 살 때 발에 떨어진 '지까다비' 한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아내는 밤에 남몰래 고무신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열흘 정도가 지나고,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다른 집 담 너머로 던져 버렸던 고무신짝이 다시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와 '나'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러다 '나'는 삶의 균형을 잡아 주었던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린다.
아내는 다시 고무신을 버리려 나가고, '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한다.

주제 :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과

넉넉한 삶의 회복을 염원함

<큰 산>은 3선 개헌과 같은 정치적인 변화를 전혀 기술하지 않은 채 소시민의 자기 보존적 속성에서 비롯한 극심한 이기주의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짐작하도록 한다.

'큰 산'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동질감을 회복시켜 주며 그로 인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소재이다.

이호철 <큰 산>

- ◆ 갈래 : 현대소설, 단편소설
- ◆ 성격 : 풍자적, 우의적, 회상적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 시간적 → 1970년대

* 공간적 →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사는 마을

◆ 표현상 특징

*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긴밀히 연계됨.

* 역순행적 구성

* '고무신짝' →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며, 인물들의 내재된 의식(이기심)을 드러내주는 기능.

* 큰 산 →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평온함을 주는 청색의 이미지, 넉넉함과 안정감을 줌, 정신적인 지주, 구성원들의 정체성의 근원, 사람다운 삶을 가꾸고 지키는 질서)

등장인물

나

- 작중 화자이자 주인공
- 고무신짝을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소시민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비판
- 마음의 중심으로서 고향 마을의 큰 산을 떠올림.

아내

- 불길한 느낌의 흰 고무신을 담장 너머로 던지나 다시 그 고무신이 되돌아온 것을 보고 결국은 그 신발을 먼 데 버리고 옴.

줄거리

- '나'가 사는 마을은 비교적 대학 출신의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많이 사는 마을 가끔 곱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 어느 날 첫눈이 내린 아침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내와 '나'는 왠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 '나'는 과거 어린 시절 밭에 버려진 신짝(지카다비)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떨던 기억을 떠올린다.
- 아내는 밤에 남몰래 고무신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 열흘 후 아내가 던져 버렸던 고무신짝이 담 밑에 다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와 아내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 그러다 '나'는 삶의 균형을 잡아 주었던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린다.
- 아내는 다시 고무신을 버리러 가고, '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한다.

주제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

→ 넉넉한 삶의 회복을 염원함.

<큰 산> - 이호철

3314 정수아

<시대적 배경>

공동체 해체, 군사정권, 독재체제로 인해 불안해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일상을 무너뜨리는 미지의 힘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무신 짚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당시의 어두웠던 사회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

큰 산 : 현대인이 상실한 근원적인 가치 상징, 공동체의 균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 정신적인 지주

구름에 깔려 가려진 큰 산 : 근원적 가치가 부재한 현재 고무신 짚 : 사람들의 이기심을 드러냄, 불안과 공포의 대상, 불길한 존재

<갈등양상>

나

- 지기만 피해입지 않으면 된다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 비판
- 큰 산 인식
- 아내의 행동 목인

아내, 이웃들

-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실적이면서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임
- 큰 산 인식 못함

갈래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성격	풍자적, 우의적, 회상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1970년대 서울 변두리 셀러리맨 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
주제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과 낙담한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
특징	-1인칭 서술자를 통해 고무신 짚이 돌아다니는 사건의 내막을 추측으로 서술함
	-결론은 합리성을 추구하나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동네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비판
	-현재의 사건과 과거 회상을 교차 서술함.
	-큰 산의 고고한 모습과 도시민의 이기적인 태도 대비를 통해 현대인들의 각성 유도
	-현대인의 이기적인 선택 반영

<줄거리>

발단	'나'는 대학 출신의 셀러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은 마을에 사는데, 가끔 못하는 소리가 들려옴.
전개	첫눈이 내린 날 아침, 마당에 흰 남자 고무신 짚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공포감을 느낌. '나'는 고무신 짚을 보면서 어릴 때 발에 떨어졌던 지까다비 한 짚을 보고 공포감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림.
위기	아내가 남몰래 고무신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고 비로소 마음을 놓음.
절정	열을 후, 담 밑에 그 고무신 짚이 다시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내와 '나'는 공포감에 휩싸임. '나'는 삶의 균형을 잡아 주던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림.
결말	아내는 고무신을 다시 버리고 돌아왔고, '나'는 아내의 행동을 묵인함.

큰 산_ 이호철

3411 유지현

인물정리

- ①나: 자기만 피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각박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지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②아내: 미신적인 사고를 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줄거리

'나'가 사는 마을은 비교적 대학 출신의 젊은 쉐러리맨 부부가 많이 사는 마을인데 가끔 곳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날 첫눈이 내린 아침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내와 '나'는 이를 꺼림칙하게 생각한다. 그때 '나'는 과거 어린 시절 밭에 버려진 신짝(지까다비)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떨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밤에 몰래 남의 집 담장 너머로 그 신발을 던져 버렸는데 이것이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아내와 '나'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나'는 액을 쫓기 위해 다른 집에 고무신짝을 던지는 사태를 보며 현재의 공동체가 동질성을 잃고 가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사고가 혼재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

- ①큰 산: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
- 균형과 질서를 잡아 줌.
 - 존재의 근원이 됨.
 - 심리적 안정감을 줌.
- ②고무신짝: 불안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속셈.
- 느닷없이 닥친 액운
 - 극단적인 이기주의
 - 불안감과 공포심 유발

핵심 정리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1970년대 젊은 층이 사는 마을
성격	희상적, 풍자적, 체념적
주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특징	-주인공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큰 산에 대한 존재와 필요성을 말함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냄. -'나'의 체념적인 모습을 결말로 그려, 이기적인 모습인 계속될 것임을 풍자 및 암시함

이호철 <큰 산> - 3501 김희영

[갈래] -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 풍자적, 우의적, 회상적

[배경]

- 시간적 배경 : 1970년대

- 공간적 배경 :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많이 사는 주택가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등장인물]

- 나 : 작중 화자이자 주인공. 소심하고 과민한 편.

- 아내 : 대범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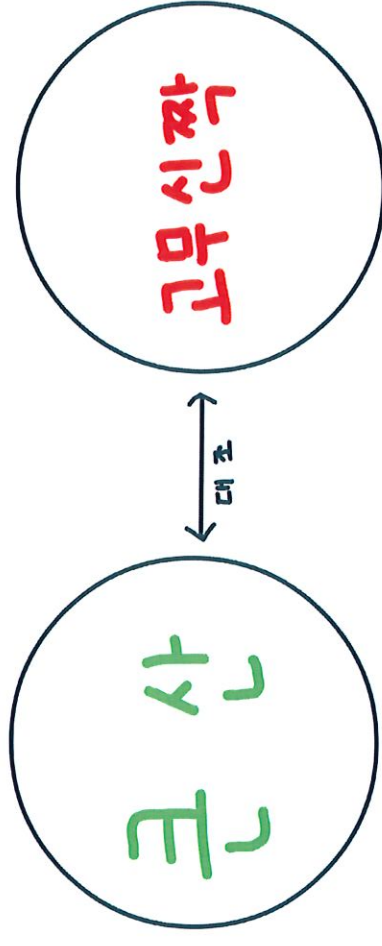
[주제] - 이기주의로 가득 찬 소시민 의식에 대한 비판(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세태 :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전체 줄거리] - '나'가 사는 마을은 비교적 대학 출신의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많이 사는 마을인데 가끔 곳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날 첫눈이 내린 아침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가 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아내와 '나'는 이를 꺼림칙하게 생각한다. 그때 '나'는 과거 어린 시절 밭에 버려진 신짝(지까다비)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떨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열흘 전의 일처럼 마당에 고무신짝이 다시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다. 아내는 밤에 몰래 남의 집 담장 너머로 그 신발을 던져 버렸는데 이것이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내는 밤에 그 신발을 가지고 멀리 버스를 타고 가서 버리고 오겠다고 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큰 산'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때 버

려져 있던 한 짝의 지까다비를 떠올리고,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아내는 신문지에 쓴 고무신짝을 갖다 버리고 다소 출가분해진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나'와 아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징]



- 삶의 근원적인 힘
-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질서와 균형을 잡아 줌.

- 불안과 공포를 상징
-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드러냄.
- 인물들의 내재된 의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함.

- **장르**: 단편소설
- **성격**: 풍자적, 우의적, 회상적
- **배경**
 - 시간: 1970년대
 - 공간: 서울 번두리의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많이 사는 마을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비판과 쇠락한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
- **특징**:
 -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 비사를 구현함.
 - 자연물에서 느낀 주인공의 주관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됨.
 -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긴밀하게 연계됨.

큰산의 상징적 의미

큰산: 공동체를 이루는 근원적 가치

구름에 갇혀 버려진 큰산: 근원적 가치가 부재한 현실

큰산에 대한 사회 주관적 인식

- 평온함을 주는 청색 이미지
- 넉넉함과 안정을 주는 존재
- 정신적인 자주와 같은 존재
- 구성원들의 정체성의 근원
- 사람다운 삶을 가꾸고 지키는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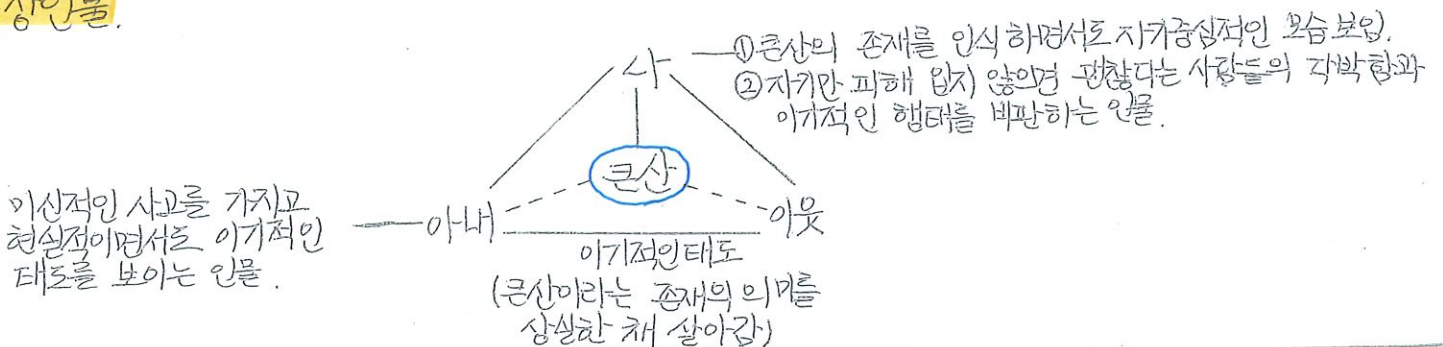
큰산의 사회적 의미

-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

고무신발 소재의 의미

고무신발: 사람들에게 "악"으로 생각되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버려지는 대상.

등장인물



작품 구조

발단	사가 사는 곳에는 지식과 교양을 지닌 젊은 샐러리맨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음.
전개	첫눈이 내린 어느날 집으로 들어온 흰 고무신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유사한 느낌을 가졌던 과거 고향의 큰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
위기	아내가 삼촌의 고무신을 삼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비로소 마음을 놓음.
절정	열흘 후 흰 고무신이 다시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공포감에 휩싸임.
결말	아내는 다시 고무신을 버리러 사가며 사는 이를 묵인함.